

The Influence of Musical Activities on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Nam Ok 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influence of musical activities on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through providing musical activities to the infants who were cared in a nursery and observing the interactions between peer group, or a therapist and an infant derived during them.

The subject is 24 infants who are under 2 years of age(25~36months) at two nurseries located in Bundang area, and 13 infants among them are randomly assigned as study group and 11 infants as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about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are performed, and ITSEA developed by Briggs-Gowan and Carter(2001) and amended by Shin Ji Yeon(2004) was used as an evaluation tool. Infants' changes of interaction behaviors during musical play were also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for the analysis, infant's social play behavior examination tool developed by Holloway and Reichhart-Erickson(1988) was adopted. Based on time sampling method, each item of this tool was evaluated.

Each session was performed for 15 minutes, and 60 times of analysis about interactions per session was conducted at every 15 seconds.

The analysis result was showed with a table and a graph, and described qualitatively about behavior changes. When compared social and emotional positive behavior average figures and negative behavior average figures between study group and control group, this study showed that the positive behavior figure of study group was increased and the negative behavior figure was decreased. While concentration and empathy among positive behaviors increased meaningfully, aggression, defiance, separation anxiety and rejection to new things among negative activities also decreased meaningfull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teractions with peers or a therapist based on music and musical experience make an effect on strengthening positive behavior among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and decreasing negative behavior. Second, music has influence on negative behaviors more than positive behaviors of an infant, and produces a good effect on sub behaviors of negative behaviors specially.

[Keywords] Infant,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Interaction, Musical Play

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만 2세(25-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남옥선*

본 연구는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음악이 또래 간 혹은 치료사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증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분당 소재 직장보육 어린이집 2곳의 만 2세(25-36개월) 영아 24명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3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1일까지로, 실험집단에게는 주 3회씩 총 17회기의 음악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비교집단에게는 동일한 시간 동안 음악이 배제된 자유선택활동이 제공되었다. 연구도구는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Briggs-Gowan과 Carter(2001)가 개발한 보육교사용 영아기 사회·정서 행동 측정도구(IT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음악놀이 활동 중에 나타난 영아들의 상호작용 행동 변화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이 개발한 영아의 사회적 놀이행동 관찰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회 세션 중 1, 5, 9, 13, 17회기 세션에서 실시된 음악활동을 시간표집법으로 분석하여 양적(표, 그래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과 부정행동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경우 긍정행동 평균점수는 증가(88.5에서 110.8)가 비교집단의 긍정행동 평균점수 증가(86.6에서 91.5)보다 점수 폭이 크게 나타났다. 부정행동 역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감소(56에서 45.8)가 비교집단의 부정행동 평균점수 감소(62.8에서 55.8)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긍정행동의 하위 영역 중 실험집단은 주의집중과 감정이입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부정행동 중 공격성·반항성과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억제) 항목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음악 활동 과정 중에 보인 영아의 행동변화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친사회적 행동,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또래 행동 모방은 증가하였으며, 방해하기 행동은 감소하였다. 영아와 치료사 간에 보이는 상호작용 중 돕기, 동조하기,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교사모방행동은 증가하였고 거부 행동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음악적 경험을 통한 또래 간 또는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정서적 행동의 긍정행동을 강화시키고 부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연구 결과 영아의 긍정행동 중 하위행동보다 부정행동의 하위행동에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음악이 부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영아, 사회·정서적 행동, 상호작용, 음악 활동

* 이화여자대학교 예술치료교육센터

서론

인간발달 과정에서 영아기(0-3세)는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인간발달의 초기 3년은 발달의 전조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기능들이 영아의 행동과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성영혜, 김연진, 이경화, 윤혜경, 송주미, 장미경, 윤석희, 이배근, 최원기, 1999). 영아기에 형성되는 많은 경험의 차이들은 인간발달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영아기 동안 주변 환경을 통해 적절하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 사회적 자극들은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의 기초가 된다. 또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을 설명하고 성인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따라서 영아들이 발달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불안정함과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영아에게 발달을 지원하는 적절한 환경, 즉 안전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부모가 아닌 다른 타인과의 관계(조부모, 형제, 친족)를 통해 여러 행동들을 모델링할 수 있었고, 조부모나 친족 등의 대리 양육자가 보호 및 양육을 도울 수 있었으며, 사회적 가치나 규범들을 사회화시키는 등 영아들의 지지적인 환경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바쁜 일상 때문에 부모와 영아 간에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혼 등으로 더 이상 가정이 안전한 환경의 제공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아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유해환경과 심리적 위기에 처하게 되며, 각종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강성연, 유가효, 2002).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영아기에 대한 시각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관에 보내지는 연령이 하향화됨에 따라 영아기부터 하루의 대부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영아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 및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나 보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타인(또래, 교사)과 보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행동의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며(이주옥, 장현주, 2004), 부모, 가족과의 관계만큼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정서적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정서적 행동에 있어 음악은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하는데, 양수 환경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과 심장의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지며, 출생 후 듣게 되는 타인(주로 어머니)의 목소리, 노래 소리, 그리고 다양한 청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이러한 소리와 리듬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며 만족되어야 하는 본능적

인 욕구들 중 하나이며(Gaston, 1968; 정현주, 2005, 재인용), 특히 발달 과정에서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음악을 사용한다. 따라서 음악은 인간과 인간의 언어 이전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라 말할 수 있다.

음악이 가지는 사회적인 힘에 대해 살펴보면, Gaston(1968)이 ‘음악은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한 것과 Sears(1968)가 ‘음악이란 그룹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경험이다.’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음악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음악적 경험은 유아와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참여, 나눔, 협동을 격려한다(McAllester, 1991). 따라서 음악적 경험 안에서 영아는 또래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는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은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 관련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과 방법에 대한 연구(김옥주, 2006; 유은숙, 2004),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음악에 대한 반응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유재경, 2001), 3-8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목소리와 노래 소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유지형, 2005) 등이 있다. 영아기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의 수가 적으며 평가도구에 의해 측정되지 않거나 적의 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음악적 발달 단계와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제한점을 갖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영아기가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과 영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음악이 타인과 의사소통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계획된 음악 활동이 직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이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전과 후에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음악활동 중에 영아들의 행동은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위한 음악 활동의 적용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음악 활동 실시 과정 중 영아의 행동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분당 소재 직장보육어린이집 2곳의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참여한 총 인원은 24명(실험집단 13명, 비교집단 11명)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할 때 성비와 실험 종료 시점의 월령을 고려하였다. 실험집단은 13명(남아 6명, 여아 7명)이며 평균 월령은 31개월이고, 비교집단은 11명(남아 6명, 여아 5명)이며 평균월령은 35개월이다.

2. 연구 도구

1)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 도구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Briggs-Gowan과 Carter(2001)가 개발하고, 신지연(2004)이 변안, 수정한 영아기 사회·정서 측정도구(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를 사용하였다. ITSEA는 12개월-36개월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내면적 문제행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2문항이다. 평가 방법은 지난 한달 간의 영아 행동에 근거하여 행동의 빈도나 정도를 3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 점/가끔 그렇다 1점/항상 그렇다 2점)로 평정하며, 평정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하위 영역 및 전체 점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다음은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이다.

<표 1> 사회·정서적 행동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

범주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하위영역	순응 주의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	<외면적 문제>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내면적 문제> 우울·위축 일반적인 불안수준

2) 사회적 상호작용 관찰

음악 활동 안에서 보이는 영아의 또래 및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이 개발하고, 신혜원(1992)이 번안 수정한 놀이행동 관찰표를 근거로 최서운(2003)이 보완하여 사용한 ‘영아의 사회적 놀이행동 관찰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놀이행동 관찰 도구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개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두 항목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에 따른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또래와의 상호작용 하위항목

범 주	긍정적 상호작용	의존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하위영역	친사회적 행동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도움요청 또래 행동 모방 승인, 인정 요구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거절 방해하기

<표 3> 교사와의 상호작용 하위항목 및 조작적 정의

범 주	긍정적 상호작용	의존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
하위영역	듣기 동조하기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도움요청 교사 행동 모방 승인, 인정 요구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거절

3. 연구 절차

1)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07년 3월 23일을 시작으로 하여 2회의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치료사가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놀이를 통하여 영아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영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실험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7년 5월 11일까지 주 3회씩 총 17회기를 실시하였으며, 각 회기는 20분 동안 진행 되었다. 매 회기는 영아들의 정서 상태나 치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2) 연구 설계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위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실험적 처치로 하여, 프로

그럼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비교집단 간의 사전사후 비교집단설계 형식을 채택하였다. 실험집단 영아들이 음악 활동을 하는 동안 비교집단 영아들은 음악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놀이를 하도록 하였으며, 활동 시간은 두 집단 모두 20분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1) 사전·사후 검사

영아기 사회·정서 측정도구(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를 사용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으로 독립 t-test를 실시하였다.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음악 활동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나온 양적 자료를 사전점수에서 사후점수를 뺀 값으로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2) 음악 활동 안에서의 변화과정 분석

사회적 놀이행동 관찰 도구'의 하위 항목을 사용하여 음악 상황 안에서 영아가 보이는 또래 혹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하였다. 영아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표집법을 사용하였는데, 매 회기에서 실시된 음악활동 시간 20분 중 Hello song과 Good-bye song을 제외하고 첫 활동 시작 후 15분간을 15초로 나누어 각 회기 당 총 60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빈도로 표시하였다. 분석시의 주관적인 견해와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음악치료사 2명이 실험집단 13명의 행동에 대해 1, 5, 9, 13, 17회기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평가 전에 한 회기 녹화 내용을 함께 보면서 협의를 한 후 평가하였다. 분석한 내용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행동변화에 대해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4. 음악 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또래 간 혹은 치료사와 음악적, 비음악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은 강화하고 부정행동(문제행동)은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음악 활동 외의 환경, 다시 말해 교실 상황이나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절차

영아의 발달 및 음악 발달 특징을 고려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또래 관계의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문헌 고찰을 통한 2세 영아의 발달 특징과 음악 발달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이 보육

시설에서 받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음악치료 논문들 중 사회·정서와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여 어떠한 목적 및 방향을 가지고 개입하였는가를 알아보았으며,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정서 영역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 고찰의 결과를 반영하여 만 2세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이 영아의 발달 특성 및 사회·정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 관련영역의 전문가 2명(음악치료사 2명)에게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고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본 음악 활동 프로그램은 내용측면에서는 영아의 발달상황 및 음악적 발달 단계,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 관계 등을 고려하였다. 기존 영아 음악교육이나 영아 교육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참고하고 본 연구자가 이전에 영·유아들을 대상(장애, 비장애 영·유아)으로 한 음악치료 활동들 중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개입들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음악치료에서의 중재 방법 중 악기연주, 동작 및 신체표현 활동, 노래 부르기, 즉흥연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영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의집중이 어려운 영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음악적 자료, 예를 들면, 공, 스카프, 낙하산, 색깔 테이프 등을 음악 활동의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형식 측면에서는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하위 영역, 즉 순응, 주의집중, 모방 및 놀이, 동기, 감정이입, 친사회적 또래관계 영역의 정의들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계획하였다.

4)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1) 프로그램의 구성

① 전체 프로그램 구성

음악 활동 프로그램은 음악 발달 단계 및 영아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 관계를 고려하여 목표와 개입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단계별 프로그램의 목표 및 논거이다.

<표 4> 전체 프로그램 구성

단계	목 표	논 거
1 단계 (1-2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와 치료사, 다른 영아와의 관계 형성 ▪ 새로운 상황(음악치료 활동)에 적응 ▪ 음악치료 활동에 흥미 및 참여 동기 유발 	<p>영아와 치료사 및 다른 그룹원과의 관계형성이 없이는 영아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아들에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편안한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p>

<p>2 단계 (3-16 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응(지시 따르기) ▪ 주의집중 ▪ 모방 및 놀이 ▪ 동기 ▪ 감정이입 ▪ 친사회적 또래관계 	<p>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들을 촉진할 수 있는 음악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긍정행동이 강화되고 많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부정행동(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영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정화하고 조절하며 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적합한 행동을 함으로 하여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p>
<p>3 단계 (17 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을 위한 준비 및 종결 	<p>영아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끝나게 됨을 충분히 알리고 지난 회기의 활동들을 반복하여 종결 준비를 한다.</p>

② 각 회기 프로그램 구성

매 회기는 인사노래, 관계증진 활동, 사회·정서적 행동을 위한 음악 활동, 헤어지는 노래 네 단계로 구성되며, 진행 시간은 20분이다. 인사노래를 시작으로 하여 아동과 눈맞춤을 시도하고 가벼운 신체 접촉(인사노래 부르며 악수하기, 손바닥 마주치기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증진 활동에서는 안아주기, 상호 동작 활동을 통해 주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함으로 영아와 치료사, 영아와 영아간의 관계 형성을 돕는다. 본 활동은 사회·정서적 행동을 위한 음악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자세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을 정리한다. 이와 같은 단계로 진행되나 활동이 진행될 당시의 영아의 상황, 기분, 정서, 반응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다음은 각 회기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표 5> 각 회기 프로그램 구성

시간	구 성	내 용
3분	인사노래 (Hello Song)	▪ 영아와 노래로 인사를 나누고 영아의 기분, 상황 등을 파악한다.
3분	관계 증진 활동	▪ 신체적 접촉이나 노래 부르기, 상호 동작 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분	음악놀이 프로그램 활동	▪ 목표에 따라 계획된 음악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분	헤어지는 노래 (Good-bye Song)	▪ 활동을 정리하고 노래로 인사 나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3단계 17회기로 구성된다. 각 회기의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각 회기별 활동 목표 및 내용

회기	목표	내용
1	관계형성 흥미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악기 전달 음악게임 '나눠요' 신체 접촉을 통한 관계형성 활동 '사랑해요'
2	관계형성 흥미유발 참여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악기 전달 음악게임 '나눠요'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꽃을 찾아 온 나비'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3	관계인식 주의집중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흥미 및 동기 유발을 위한 동작 활동 '춤추는 스카프' 관계 인식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딩동'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4	순응(지시 따르기) 모방 및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지시 따르기를 위한 악기연주 활동 '모두 멈춰라' 모방 및 지시 따르기를 위한 동작 활동 ' 짹짹'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5	또래 간 상호작용 모방 및 놀이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모방 및 놀이를 위한 음악 신체활동 '떼구르르' 1:1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꽃을 찾아 온 나비'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6	순응(지시 따르기) 모방 및 놀이 친사회적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모방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북소리'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딩동' 신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7	순응(지시 따르기) 또래 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인식을 위한 이름소개 활동 '친구' 지시 따르기를 위한 악기연주 '심벌' 상호작용을 위한 동작 모방활동 '나눠요'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8	모방 및 놀이 주의집중 또래 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및 상호작용을 위한 음악 신체활동 '떼구르르' 상호작용을 위한 즉흥 악기연주 '레조네이트' 모방 및 놀이를 위한 북 즉흥연주 '북소리'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9	관계증진 및 상호작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딩동' 관계 증진 및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땀버린'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10	타인 감정이해 상호작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 이입을 위한 노래 부르기 및 모방활동 '자장' 모방 및 상호작용 놀이를 위한 동작활동 ' 짹짹' 1:1 관계 증진 및 상호작용을 위한 신체활동 '떼구르르'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11	타인감정 이해 주의집중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 따르기 및 모방을 위한 동작 활동 '흔들흔들' 주의집중과 지시 따르기를 위한 활동 '꽃을 찾아 온 나비'

	순응(지시 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 따르기를 위한 악기연주 '모두 멈춰라' ▪ 또래 간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12	또래 간 상호작용 주의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간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터치' ▪ 주의집중 및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탤버린' ▪ 상호작용을 위한 동작 활동 '우리 모두' ▪ 또래 간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13	감정이입 및 또래 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 따르기 및 상호작용을 위한 '춤추는 스카프' ▪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복과 심벌' ▪ 감정이입을 위한 노래 부르기 및 모방 활동 '자장'
14	주의집중 또래 간 음악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집중 및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활동 '탤버린' ▪ 지시 따르기 및 모방을 위한 동작 활동 '흔들흔들' ▪ 놀이 및 상호작용을 위한 '무지개 우산' ▪ 또래 간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15	음악놀이를 통한 또래 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 따르기를 위한 악기연주 '모두 멈춰라' ▪ 상호작용 및 동기를 위한 악기연주 '소리 내봐요' ▪ 상호작용 및 놀이를 위한 악기연주 '시소놀이'
16	또래 간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집중 및 상호작용을 위한 악기연주 '작은 별' ▪ 동기 및 놀이를 위한 활동 '무지개 우산' ▪ 또래 간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활동 '사랑해요'
17	상호작용 및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 및 놀이를 위한 악기연주 '시소놀이' ▪ 상호작용 및 지시 따르기를 위한 악기연주 '발소리' ▪ 종결을 위한 반복 활동 '딩동' ▪ 종결을 위한 반복 활동 '사랑해요'

연구 결과

1. 음악활동 적용 효과

1)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변화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집단은 하위 행동 중 주의집중($p < .039$)과 모방 및 놀이($p < .039$)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 중 주의집중($p < .021$)과 감정이입($p < .011$) 행동에서 음악활동을 제공하기 이전 값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보였는데, 특히 감정이입은 $p < .01$ 에 가깝게 나타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7> 활동 실시 전 후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의 변화

하위영역	집단	N	평균(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순응	비교	11	1.17(0.33)	1.38(0.32)	1.150
	실험	13	1.28(0.36)	1.44(0.29)	1.499
주의집중	비교	11	1.16(0.46)	1.55(0.48)	2.378*
	실험	13	1.29(0.39)	1.58(0.29)	2.656*
모방 및 놀이	비교	11	1.20(0.38)	1.48(0.26)	2.375*
	실험	13	1.33(0.27)	1.49(0.24)	1.848
동기	비교	11	1.27(0.46)	1.33(0.39)	0.559
	실험	13	1.37(0.36)	1.38(0.55)	0.163
감정이입	비교	11	1.00(0.45)	1.23(0.41)	1.936
	실험	13	0.95(0.44)	1.21(0.56)	3.028*
친사회적 또래관계	비교	11	0.89(0.59)	1.07(0.36)	1.311
	실험	13	0.97(0.54)	1.18(0.43)	1.964

* p<.05

2)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변화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집단은 부정행동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실험집단의 경우 3가지 하위 영역 공격성·반항성(p<.030), 분리불안(p<.47),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p<.000)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사회·정서적 긍정 행동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표 8> 활동 실시 전 후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의 변화

부정행동	집단	N	평균(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외현적 문제행동	활동·충동성	비교	11	0.94(0.46)	0.71(0.48)	-1.936
		실험	13	0.97(0.61)	0.74(0.54)	-1.737
	공격성·반항성	비교	11	0.69(0.42)	0.63(0.43)	-0.639
		실험	13	0.56(0.51)	0.36(0.34)	-2.456*
내면적 문제행동	우울·위축	비교	11	0.51(0.36)	0.47(0.19)	-0.328
		실험	13	0.56(0.28)	0.47(0.27)	-1.425
	일반적인 불안수준	비교	11	0.30(0.26)	0.47(0.32)	2.246
		실험	13	0.35(0.32)	0.32(0.30)	-0.454
	분리불안	비교	11	0.85(0.44)	0.67(0.52)	-1.287
		실험	13	0.72(0.43)	0.52(0.45)	-2.208*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비교	11	1.02(0.62)	0.90(0.50)	-1.336
		실험	13	1.25(0.65)	0.80(0.58)	-5.165***

* p<.05, *** p<.001

2. 음악 활동 실시 과정 중 영아의 행동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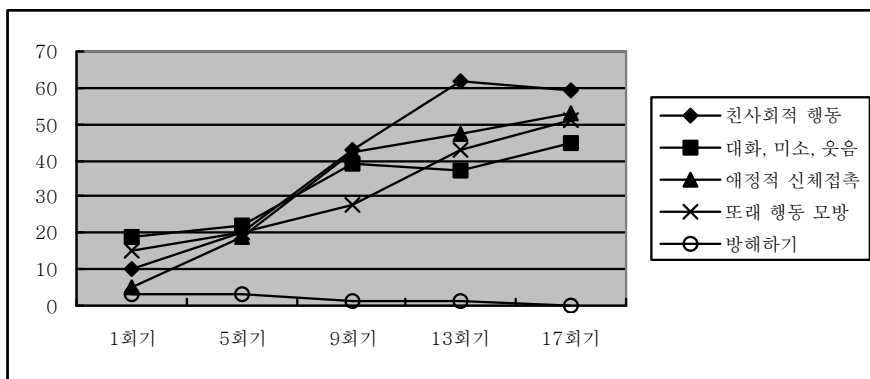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음악 활동 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 변화에 대해 양적(빈도수에 따른 표와 그래프)으로 나타내어 상호작용 행동 양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고, 질적으로는 음악 활동 중에 보인 행동변화 및 상호작용 특성에 대해 관찰 도구의 하위 영역별로 기술하였다.

1)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 양적 분석

또래 간에 보이는 상호작용 행동 중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친사회적 행동,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또래 행동 모방, 방해하기 행동의 회기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9> 또래 간 상호작용 행동 분석

	1회기	5회기	9회기	13회기	17회기
친사회적 행동	10	20	43	62	59
대화, 미소, 웃음	19	22	39	37	45
애정적 신체접촉	5	19	42	47	53
또래 행동 모방	15	20	28	43	51
방해하기	3	3	1	1	0



<그림 1> 또래 간 상호작용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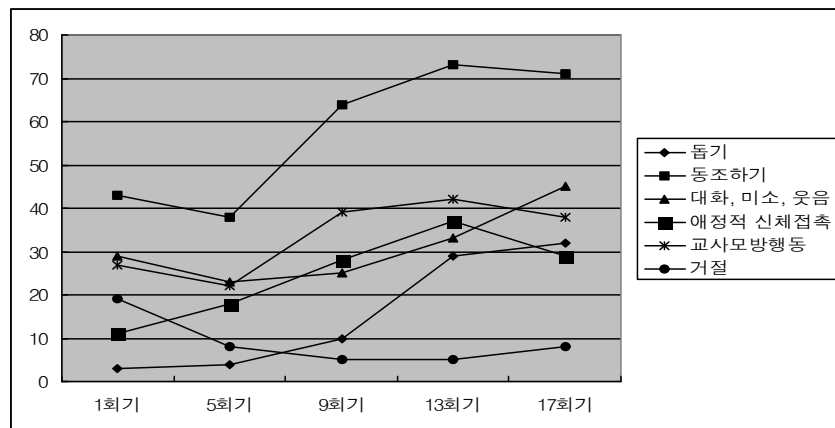
분석 결과 친사회적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 1회기에는 10회에서 13회기에는 62회의 행동을 보였다. 대화·미소·웃음 행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17회기에 45회 관찰되었으며, 방해하기 행동은 1회기에 3회에서 17회기에는 0으로 감소하였다.

2) 치료사와 상호작용 행동 양적 분석

영아와 치료사 간에 보이는 상호작용 행동 중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돕기, 동조하기,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교사모방행동, 동조하지 않기 행동의 회기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10> 치료사와 상호작용 행동 분석

	1회기	5회기	9회기	13회기	17회기
돕기	3	4	10	29	32
동조하기	43	38	64	73	71
대화, 미소, 웃음	29	23	25	33	45
애정적 신체접촉	11	18	28	37	29
치료사 행동모방	27	22	39	42	38
거절	19	8	5	5	8



<그림 2> 치료사와 상호작용 행동 그래프

분석 결과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행동은 동조하기 행동이며 급속하게 감소한 행동은 거절 행동이다. 돕기, 대화·미소·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교사모방 행동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3) 또래 및 치료사와의 상호작용 행동 질적 기술

(1) 또래 간 상호작용 행동 질적 기술

① 친사회적 행동

영아들 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악기 전달 음악게임 활동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타인과 함께 활동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순서를 지키며 치료사가 지시하는 다른 영아에게 악기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초반부 회기에서 악기를 전해 주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전해주는 영아나 받는 영아 간에 의미 있는 눈맞춤이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악기를 던지듯이 전해주는 영아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치료 후반부로 갈수록 한 악기를 모든 그룹원이 함께 연주하는 행동이나 악기를 전달하는 행동 등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이때 또래를 바라보거나 웃는 행동 등이 함께 증가하여 나타났다. 또한 순서를 기다리면 모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다른 영아들이 활동하는 것을 주의 집중하여 바라보았다.

② 대화·미소·웃음

또래간의 대화·미소·웃음 행동 중에서 대화보다는 미소와 웃음 행동이 더 빈번하게 표현되었다. 대화의 경우 한 영아가 다른 영아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눈을 마주보고 감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은 미소와 웃음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하나의 악기나 비음악적 자료를 활용한 활동, 예를 들면, 큰 사이즈의 개더링 드럼, 하나로 연결된 스카프, 낙하산 등을 활용한 활동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연주하거나 함께 흔들다가 멈추는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웃는 행동 등을 주로 보였다.

③ 애정적 신체접촉

영아들 간에 서로 눈맞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바라보면서 웃거나 장난을 치려고 손을 뻗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다. 초반부에는 음악 활동 안에서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다른 영아와 신체접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꽃을 찾아 온 나비’에서 손가락 접촉, ‘사랑해요’ 활동에서 안아주기, ‘ 짹짹’ 활동에서 손바닥 부딪히기 등을 통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였다. 후반부 회기 중 ‘사랑해요’ 활동에서 2명의 영아가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른 영아를 안아주거나 담임교사에게 먼저 다가가 안아주려는 행동을 보이는 영아들이 있었다.

④ 또래 행동 모방

모방행동에서는 치료사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보다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는 행동이 더 늦게 나타났다. 이는 제시된 음악 활동과도 연관성을 가지는데, 초반부 회기에 제시된 활동이 주로 치료사의 행동을 모방한 다음 다른 영아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빈도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활동 과정 중에 다른 영아와 눈맞춤이 지속되거나 관심 갖고 바라보기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기 회기에서는 다른 영아에 대한 관심이 적고 모방 행동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활동 중에 영아들의 또래 행동 모방은 대부분 다른 영아의 음악 외의 일반적인 행동 모방(예를 들어, 뒤로 돌아 앉거나 바라보고 재미있는 표정 만든 것을 모방하기)과 음악적인 또래 행동 모방(예를 들면, 함께 북을 연주하는 ‘북소리’ 활동에서 영아 한 명이 주먹으로 북을 두드리자 영아 2명이 따라하는 행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음악적인 행동 모방 보다 음악적인 행동 모방이 또래 행동 모방에서 주를 이루었다.

⑤ 방해하기

영아들은 대부분 1회기부터 활동에 집중하고 전체 그룹에 방해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악기를 뺏거나 다른 영아들의 활동을 침범하는 수준의 방해하기가 아니라 먼저 악기를 연주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요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이 나타났다. 회기가 진행되면서 영아들의 이러한 방해하기 행동은 감소하여 후반부 회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활동에 점차 몰입하게 되고 활동의 규칙을 이해하면서 집중력과 기다리는 자기 조절력 등의 증가와도 관련된다.

(2) 치료사와의 상호작용 행동 질적 기술

① 돕기

영아들의 돕기 행동은 악기 정리 활동처럼 음악적 지시가 없는 외적인 상황에서 주로 나타났다. 일부 영아들은 악기에 대한 소유욕과 연주를 계속하고 싶은 요구 등으로 인해 치료사가 악기를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머뭇거리거나 악기를 뒤로 숨기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악기를 주어야 다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기가 진행되면서 영아들은 자발적으로 악기를 치료사에게 주기 시작하였다. 돕기 행동은 치료사가 도움을 청했을 때 모든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에 응하였으며, 치료사의 요청 없이 상황을 판단하고 치료사를 도와주는 행동도 나타났다.

② 동조하기 및 거절

영아들은 대부분 치료사의 지시나 음악적 지시에 동조하는 행동을 보였다. 악기 연주나 전달 행동에서 주로 동조하는 행동이 나타났는데, ‘딩동’ 활동에서 노래의 지시(oo이에게)에 따라 악기를 다른 영아에게 전해 주었고 ‘춤추는 스카프’ 활동에서도 음악적 지시에 따라 스카프를 흔들거나 옆으로 전달하였다. 초반부 회기에서는 동조하기가 높게 나타나다가 4-5 회기에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악 활동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고 치료사와의 관계도 형성되면서 자기가 악기를 소유하고 싶거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요구를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조하거나 거절 행동과 관련되어 영아들의 언어적 자기 의사 표현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인사노래를 부를 때 치료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갑습니다’하고 노래를 불렀고, ‘oo이 oo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활동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였다.

③ 대화·미소·웃음

치료사와의 대화 행동에서 영아들은 치료사의 지시, 제안, 노래 등을 주의 깊게 들었다. 치료사와 영아간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치료사에게 간단한 말을 거는 영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늘 계란(에그셰이커) 할거예요?’나 ‘OO 먼저 할래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대화가 주를 이루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초반부 회기에서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치료사를 탐색하면서 무표정이나 긴장된 표정을 나타내는 영아들이 있었는데, 활동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표정을 보이게 되었다. 영아들의 활동 안에서의 무표정은 2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무표정과 활동에 집중하면서 생기는 무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회기가 진행될수록 후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④ 애정적 신체접촉

초반부 매 회기마다 치료사와 영아가 신체를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었는데, 대부분의 영아들은 치료사와 안아주는 활동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한, 두 명의 영아는 치료사가 안아주기 위한 행동을 취하면 몸을 뒤로 빼고 고개를 젓는 등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었다. 악기연주나 동작 활동 등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치료사의 행동에 동조하는 모습과 달리 신체적 접촉에서만은 치료사를 거부하였다. 이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기질적으로 싫어하거나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⑤ 치료사 행동 모방

영아들은 치료사가 제시하는 활동에서 치료사의 동작이나 연주 방법 등을 모방하여 활동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2회기 ‘꽃을 찾아 온 나비’ 활동에서 색깔 테이프를 손가락에 붙여 나비처럼 흔드는 행동이나 3회기의 ‘춤추는 스카프’에서 치료사가 동작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는 등 초반부 회기에서부터 행동 모방이 나타났다. 행동 모방뿐만 아니라 소리 모방도 나타났는데, 소리 모방활동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치료사가 말렛을 영아들에게 줄때 부르는 노래 등을 기억하고 치료사가 말렛을 주는 그 순간에 노래를 불렀다.

결 론

본 연구는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2세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음악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 활동과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음악 활동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음악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자유선택 활동을 한 비교집단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평균점수를 비교 한 결과, 실험집단의 긍정행동 평균점수 증가가(88.5에서 110.8) 비교집단의 긍정행동 평균점수 증가(86.6에서 91.5) 보다 더 높게 나타나 비교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음악활동이 보육시설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희(1999)의 연구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해 연구한 송지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영아기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발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실험집단($p < .021$)과 비교집단($p < .039$) 모두 주의집중 항목에서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영아들의 보육시설 적응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전검사가 실시되었던 시점(3월 중순)에는 영아들의 주의가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자극에 분산되었다가 점차 기관에 적응하고 제공된 교육 활동들에 흥미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검사 시점(5월 중순)에서는 기관에 더 많이 적응하게 됨으로써 두 집단의 주의집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경우 주의집중 행동 변화는 음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선택하고 활동에 몰입하면서 선택된 자극을 유지하게 됨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비교집단은 모방 및 놀이행동에서 유의미한 변화($p < .039$)를 보였는데, 이는 실험집단이 음악놀이를 하는 동안 비교집단은 자유선택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실험집단에 비해 시간적(양적)으로 놀이 활동이 더 많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실험집단에서는 감정이입($p < .011$)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음악활동이 타인의 생각 및 정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나타낸다. 영아들의 발달 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음악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음악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적 긍정행동 중 하위 행동 항목에서 통계 수치상으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간의 차이가 크거나 실험집단의 변화 행동 항목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악 활동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나 교사들에 의해 보고되어진 교실에서 보이는 영아들의 행동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음악 활동은 영아의 사회·정서적 부정 행동을 감소시킨다. 음악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자유선택 활동을 한 비교집단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평균점수를 비교 한 결과, 실험집단의 부정행동 평균점수 감소(56에서 45.8)가 비교집단의 부정행동 평균점수 감소(62.8에서 55.8)보다 정도가 크게 나타나 비교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부정행동 6영역 중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실험집단은 공격·반항성과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억제)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의 공격성·반항성 행동은 유의미한 변화($p < .030$)를 나타냈는데, 영아들이 활동에 몰입함에 따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룹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그룹 안에서 행동을 조절하게 되면서 감소되었다고 본다. 실험집단은 분리불안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변화($p < .047$)를 보였는데, 이는 음악 활동이 주양육자와 분리되어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영아들에게 불안감과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이 애착의 중간매개체가 되어 집단생활에 적응하고 안정감을 갖는데 영향력을 미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억제)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p < .000$)가 나타났다. 거부 항목에 대한 p 값만이 아니라 실험집단의 사전평균값과 사후평균값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보아 음악적 경험이 영아의 낯선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거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화되는 환경에 민감한 영아들과 새로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 의도는 있으나 접근하지 못하는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심리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에서 비교집단은 통계 수치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실험집단에서만 3항목에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2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비교집단은 전혀 부정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때 음악이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보다 부정행동에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음악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부정행동을 감소시킨 것이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부정행동이 감소했다는 것은 사회·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으로 자신의 어려운 점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이 미숙한 영아들에게 음악활동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영아가 보인 또래 간 혹은 치료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음악 활동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들이 행동 변화를 보인 하위 영역은 달랐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세부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음악이 영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하위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아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바라보기 행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아들 대부분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바라보기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처음에는 치료사와의 바라보기가 주었던 반면, 점차 다른 영아들 간에 의미 있는 바라보기가 나타났고 이와 유사하게 모방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 웃기·미소 짓기 등 증가하였다. 이러한 의미 있는 바라보기는 영아들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험집단 영아들의 행동 변화가 전적으로 음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이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행동 조절이나 감정표현에 어려움을 가진 영아들이 음악 활동 안에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음악 외적인 환경(교실)에서도 기관 생활에 적응하고 다른 교육활동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며, 다른 영아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 등을 볼 때 음악이 영아의 상호작용 및 사회·정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적 행동을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실행하였을 때 음악적 경험이 그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음악과 음악적 경험을 통한 또래 간 혹은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아의 행동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사회·정서적 행동 중 긍정행동은 강화되었고 부정행동은 감소하였다. 긍정행동 중에서도 특히, 주의집중과 감정이입 행동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음악이 다른 여러 자극들 중에서 부적절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분리하도록 도우며 선택적 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악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이입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활동과 관계 형성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부정행동 중에서는 음악 활동이 공격·반항성,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억제) 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비교집단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음악이 인간의 부정적 정서와 감정의 인식, 표현,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영아들의 공격행동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음악 활동 과정 중에서 다른 영아와 악기를 나누고 하나의 음악적, 비음악적 매개체를 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영아와 나누는 행동이 반복되고 자연스런 내면화가 이루어져 공격행동이 감소되었다. 또한 단순한 구조를 가진 반복적인 음악은 영아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활동에 몰입하게 하여 분리불안으로 인한 위축이나 불안감이 감소하고 분리불안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억제) 행동에서는 음악 활동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경계심과 위축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영아들이 활동에 몰입하고 안전한 환경을 인식하게 되면서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 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긍정행동을 촉진시키고 부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실험집단의 인원수가 13명으로 분석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아들의 발달 특성상 한 학급 인원이 10-12명 정도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실험하였지만 총 참여 인원이 24명으로 그 수가 적다.

둘째, 음악 활동이 실시되기 전 음악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음악치료사 두 명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음악치료학자와 영아 교육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 타당성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실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특정 활동에 영아들의 전반적인 참여가 저조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한계점 때문이다.

셋째, 영아들 각각이 선호하는 활동이 다르고 음악에 대한 흥미, 능력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공된 프로그램이 모든 영아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험에 참여한 한 영아의 경우 영아의 특성이 행동에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흥미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신체로 표현하거나 큰 소리가 나는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순서를 기다리거나 흥미가 없는 활동에서는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따라서 음악에 대한 선호도나 흥미 및 동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음악 관련 학문(음악교육, 영유아교육, 음악치료학)에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그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정서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음악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음악 활동이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부정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종일보육을 받는 영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공격적, 적대적 문제행동이나 불안장애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음악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령과 발달상의 제한점 때문에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음악이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결론과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구조적인 음악 활동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사회·정서적 행동 및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영아들에게 체계적인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문제예방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수 있다. 즉, 영아들의 사회·정서적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음악 활동, 음악 치료적 접근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양적으로 미흡한데, 음악과 영아의 인지,

언어, 신체 영역의 관련성 및 음악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실험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더불어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정서적 하위 행동들 각각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일부 하위 행동들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한 행동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연, 유가효(2002). 소아정신과 내원아동의 문제행동 관련변인 연구.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논집, 28, 137-155.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김옥주(2006). 영아 음악활동 방법 연구 : 만 2세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혜, 김연진, 이경화, 윤혜경, 송주미, 장미경, 윤석희, 이배근, 최원기(1999). 『영유아 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신지연(2004).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과 사회·정서적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원(1992).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실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숙(2004). 영아 음악교육 방법 연구 : 영아 발달단계에 의한 놀이 음악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경(2001). 음악적 자극에 대한 신생아의 반응 및 선호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형(2005). 청각적 자극에 대한 영아의 음색구별 반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 장현주(2004). 영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25-41.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서윤(2003).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놀이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iggs-Gowan, M. J., & Carter, A. S. (2001). Infant 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ITSEA) Manual version 1.1. The Connecticut Early

Development project, Yale University.

Briggs-Gowan, M. J., Carter, A. S., Jones, S. M., & Little, T. D. (2002). The Infant-Toddler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ITSEA): Factor Structur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5), 495-514.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Macmillan.

Holloway, S. D. & Reichhart-Erickson, M. (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1), 39-53

McAllester, D.(1991) Becoming human through music. Reston, VA : Music Education's National Conference.

Sears, W. (1968). Processes in music therapy. In E. T. Gaston (Ed.). *Music in Therapy*. New York: MacMillian Co.